

Discarding of Library Collections

圖書館資料의 廢棄政策

李 炳 穆 · 徐 惠 蘭
(延世大學校 圖書館學科)

1. 서 론

Jesse H. Shera 는 도서관의 목적이 필사기록물(graphic records)의 사회적 활용을 극대화하는데 있다고 하였다¹⁾. 이러한 도서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서관은 필요한 자료를 선정, 수집하고 이를 조직, 보존하며 이용자에게 활용시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도서관은 인간 문화 발전의 중요한 매개체라고 볼 수 있다.

현대 인간 지식의 양적, 질적 성장은 실로 눈부신 바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으며 어제의 지식은 이미 낡은 것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도서관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도서관이 계속 새로운 정보 자료를 선정, 수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새로운 정보 자료의 수집에 노력하는 도서관은 날로 늘어나는 자료의 보관을 위한 면적의 부족, 많은 자료의 관리를 위한 예산문제, 효과적인 자료검색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낡은 자료, 이용되지 않는 자료의 폐기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합리적 도서관 경영을 위해서는 자료의 선정만큼이나 자료의 폐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그 중요성이 도서관학관계 문헌에서 자주 과소평가 되어왔고 실제로 도서관 실무에서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었다²⁾. 본 논고에서는 도서관의 합리적 경영을 위한 폐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폐기해야 할 도서를 선정하는 원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용어의 정의

한국도서관협회 의 圖書館用語集³⁾에는 폐기와 이와 관련된 용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폐기(discard)

不適當한 圖書 또는 利用되지 않는 圖書를 圖書館

藏書에서 公式的으로 除去하는 일.

도태(weeding)

剩餘圖書(不必要한 復本 等), 거의 利用되지 않는 圖書, 및 利用價值 없는 圖書 等を 廢棄하거나 貯藏倉庫에 넘기는 作業.

계적(withdrawal)

亡失 또는 廢棄된 圖書에 관한 모든 記錄을 除去하는 일. 即, 카아드 目錄에서 該當 카아드를 除去하고, 帳簿에서 該當 記入事項을 削除하는 따위를 말함이다.

한편 A.L.A. Glossary of Library Terms⁴⁾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Discard

Officially withdrawn [a book] from a library collection because it is unfit for further use or is no longer needed.

(더 이용시키기에 적당치 않거나 이용요구가 없기 때문에 도서관장서에서 공식적으로 제거시키는 것)

Weeding

The practice of discarding or transferring to storage superfluous copies, rarely used books, and materials no longer of use.

(불필요한 복본, 거의 이용되지 않는 도서 및

1) Jesse H. Shera, *The Foundation of Education for Librarianishp.* (New York, Becker & Häyes, 1972) p 135.

2) Mary Duncan Carter, Wallace J. Bonk and R. M. Magrill, *Building Library Collections.* 4th ed. (Metuchen, N.J., Scarecrow Press, 1974) p.168.

3) 韓國圖書館協會, 圖書館用語集 (서울, 同協會 1962).

4)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 Glossary of Library Terms.* (Chicago, The Association, 1943).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를 폐기하거나 혹은 보관용으로 이관시키는 것)

Withdrawal

The process of removing from library records all entries for a book no longer in the library. (더 이상 도서관에 소장하지 않는 자료에 대한 모든 도서관기록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L.M. Harrod의 *The Librarians Glossary*⁵⁾에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Discard

A book that is withdrawn from circulation in a library because it is out-of-date or in too-worn or dirty a condition. (내용이 시대에 뒤떨어졌거나 혹은 의형이 너무 해어졌거나 더러워져서 도서관 유통대상으로부터 제적된 책)

Weeding

Discarding from stock books which it is considered are of no further use in the library. PSEUDO-WEEDING is transferring from one department to another, from stack to shelf and vice versa, or from files to bound form. (도서관에서 더 이상 이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는 도서를 장서로부터 폐기하는 것. 가제적(假除籍)이란 한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서고에서 열람실로 열람실에서 서고로, 혹은 파일에서 제본한 형식으로 이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상 세계의 용어집에서 우리는 용어상의 혼란을 다소 발견하게 된다. 즉 폐기에 관련된 여러 용어가 용어집마다 그리고 한 용어집내에서도 엇비슷하게 정의되어 있고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있지 않은 점이다.

Howard F. McGaw는 사서들이 "weeding"과 "discarding"을 혼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였다.

When a book is discarded, it is weeded but when it is weeded, it is not necessarily discarded. To keep library collections up to date hundreds of thousands volumes are weeded out every year, but most of these volumes are simply shifted from active shelves to other locations where borrowers will be less conscious of them.⁶⁾

(한 책이 폐기될 때 그 책은 제적되지만 제적될때는 반드시 폐기될 필요가 없다. 도서관장서에 최선

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책이 매년 제적된다. 그러나 이들 책은 현재의 서가로부터 이용자가 별로 알지 못하는 다른 장소로 이관될 따름이다)

따라서 이를 '증합한다면 discard, discarding이란 도서관 장서와 기록에서 불필요한 자료와 기록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고 weeding, withdrawal이란 넓은 뜻으로는 불필요한 자료를 기록과 함께 없애거나 기록은 남겨 놓은채 일반장서로부터 보존서고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좁은 뜻으로는 없애거나 없어진 자료에 대한 기록을 각종 도서관기록에서 삭제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내용을 감안할 때 우리 말의 어의(語義)상 "discard, discarding"은 "폐기(廢棄)"로 "weeding withdrawal"은 "제적(除籍)"으로 쓰는 것이 무난할 것 같다. 물론 두가지 용어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경우는 우리 말에서나 영어에서 종래 써오던 대로 이를 호환적(互換的)으로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극히 일부에서 쓰고 있는 "도태(淘汰)"란 용어는 비록 한국도서관학의 圖書館用語集에도 올라 있고 의미상으로도 통할런지 모르나 용어로는 어딘가 좀 생소하고 어색한듯 하므로 용어사용에 있어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이를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폐기의 필요성

Robert B. Downs는 도서량의 현저한 증가는 대학 도서관이 당면한 여러가지 위기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였다⁸⁾. 1950년 부터 1970년 까지의 20년 동안 세계의 도서 출판량은 3배로 증가했으며⁹⁾ Robert N. Broadus는 전세계적으로 연평균 약 40만종의 신간도서가 발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¹⁰⁾. 이러한 출판물의 증가는 도서관장서의 급격한 증가현상을 가져온다.

이처럼 날로 늘어나는 도서관장서량으로 인한 도서관 시설 부족의 현상은 많은 도서관에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이 문제의 가장 영구적인 해결책은 도서관을 계속 증축하는 것이지만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 흔히 도서관장서의 과밀 현상을

5) L.M. Harrod, Comp., *The Librarians Glossary*...3rd ed. (London, Andre Deutsch, 1971).
6) Howard F. McGaw, "Policies and Practices in Discarding," *Library Trends*, Vol. 4 No. 3 (Jan. 1956) p. 270.
7) 林泰三 編, 圖書選擇의 理論 (서울, 學文社, 1978) p.89.
8) Robert B. Downs, "Crisis in Our University Librarie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Vol. 22 No.1 (Jan. 1961) pp. 7-10.
9) Emile Delavenay, *For Books*. (Paris, Unesco, 1974) p.14.
10) Robert N. Broadus, *Selecting Materials for Libraries*. (NewYork, Wilson 1973) p.7.

되는 한 수단으로서 더 많은 봉사거점(access point)을 확보하는 방법, 즉 주제별로 부서화된 도서관운영을 통해 제한된 장서를 제한된 이용자에게만 제공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 해볼 수 있지만 부서화(departmentalization)는 이미 도서관 면적문제 해결의 일시적 방편에 지나지 않음이 밝혀졌다¹¹⁾.

Ralph E. Ellsworth는 대학도서관에서 새로운 도서 배열 공간에 대한 요구를 늦추는 데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활기에 찬 도서관은 계속 성장할 것이고 따라서 '만일'이 아니라 '언제' 새로운 도서배열 공간이 필요하게 될 것인가는 오로지 시간 문제라고 말하고, 신축하지 않고 늘어나는 도서관자료를 소장하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이에 대한 비판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¹²⁾.

첫째, 이용이 덜 되는 자료의 일부를 대학내의 혹은 대규모도서관자료의 밀집보존서가(compact storage stack)에 배열하는 방법. 그러나 이 방법에 대해 기초 조사한 바로는 이용이 거의 없는 자료를 보존 서가에 보낸다고 해서 경비가 절약되는 것도 아니고 대개는 도서관 이용자의 불만과 불편만을 유발시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일단(一團)의 도서관간에 수집 노력을 분담하는 제도를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대규모도서관자료에 가입함으로써 장서의 축적량을 줄이는 방법. 이 생각은 그럴듯 해 보이지만 '연구도서관을 위한 센터'(Center for Research Libraries)에서 거둔 소소한 성공을 제외고는 아직 아무도 그러한 제도를 만드는 데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셋째, 도서를 마이크로물로 대체하는 방법. 이 방법은 도서관들이 신문, 학술지, 학위논문 등을 위하여 널리 써 왔으나 비록 교수들이 마이크로물을 군소리 하지 않고 이용한다 하더라도 한 도서관이 자체의 장서를 마이크로물로 축소한다는 것은 비경제적이다.

넷째, 도서관 조직 체계를 대학내 학과별 혹은 영역별로 분산시키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Ellsworth는 직접적인 비판을 가하지 않았지만 부서화가 면적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은 앞에서 이미 살펴 본 바이다.

그런데 이처럼 도서관의 면적문제를 압박하는 도서관장서가 모두 다 활발히 이용되는 것은 아니다. Richard Trueswell의 논문에 의하면 노스웨스턴 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의 2개 도서관에서는 각각 현재 소장한 장서의 25%와 40%만으로도 전체 대출요구의 99% 이상을 만족시킨다고 한다¹³⁾. 그래서 자주 이용되지 않는 자료의 마이크로화와 함께 제시된 해결책이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를 폐기하는 방법이

다. 거의 이용되지 않으면서 서가상의 자리만 차지하는 자료를 골라내어 자료의 성질에 따라 폐기하거나 혹은 교내나 교외에 보관하는 이 방법은 Ellsworth의 말처럼 면적문제 해결에 궁극적인 방법도 되지 못하고 경비도 들지만 후술(後述)하는 바와 같이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 보다는 나을 것이고 매번 신축, 증축하기 보다는 경비가 덜 들 것이다. Keyes D. Metcalf는 장서의 모든 도서가 영원히 유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서관의 폐기가 장서의 성장율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였다¹⁴⁾. 그렇다면, 도서관의 면적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널리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자료의 폐기인 셈이다.

도서관자료 폐기의 필요성은 면적 부족 현상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폐기는 장서의 최선성과 건실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불충분한 수서와 마찬가지로 서가상에 불필요한 자료가 많은 장서의 질을 저하시킨다. 자료의 폐기를 통해 확보된 도서관의 면적은 새로운 정보요구를 만족시키는 장서의 소장에 활용되기 때문에 도서관장서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폐기는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서가상에 불필요한 도서들이 나열되고 목록함에 그러한 자료의 목록이 가득 들어있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 검색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서가상의 불필요한 장서를 폐기시킴으로써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쓸모 없는 장서를 배열하고 유지하는 등 불필요한 서가관리뿐만 아니라 연관된 도서관 업무 전반에 걸쳐 인력과 시간 및 비용의 낭비를 폐기를 통해서 막을 수 있다.

대부분의 사서들은 폐기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로 이를 수행하기를 주저하는 경향이 많다. 다음에 Carter, Bonk, Magrill 교수가 종합한¹⁵⁾ 그러한 이유들을 몇가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필자들의 비판을 곁들이고자 한다.

첫째로는 도서에 대해 경외감(敬畏感)을 가져야 한

11) Marianne Coper, "Criteria for Weeding of Collections,"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Vol. 12 No.3 (Summer 1968) p.340.

12) Ralph E. Ellsworth, *Planning Manual for Academic Library Buildings*. (Metuchen, N.J., Scarecrow Press, 1973) pp.31-33.

13) James Thompson, "Revision of Stack in Academic Libraries," *Library Association Record*, Vol.75 No.3 (March 1973) p.41에서 재인용.

14) Keys D. Metcalf, *Planning Academic and Research Library Building*. (New York, McGraw Hill, 1965) p.296.

15) Carter, Bonk, Magrill, *op. cit.* p. 168.

다는 생각이다. 옛부터 도서는 신성한 것이라고 여겨 온 우리의 관념은 도서를 폐기하는 것을 분서(焚書)나 예술 파괴(vandalism)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자료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전과는 다른 견지에서 이를 보게 한다. 이미 유용성을 잃은 도서는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잡동사니에 불과한 것이다.

둘째로는 폐기한 자료가 어느 때인가에 가서 누군가가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도서관의 예산과 면적의 압박은 이러한 우려보다 훨씬 절박한 것이다. 만일 이미 폐기한 자료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른 대규모 도서관과의 상호대차나 복사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로는 폐기를 위한 직원, 예산,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계속해야 할 폐기업무를 충분한 검토없이 비체계적이고 낭비적으로 한꺼번에 행함으로써 탐탁치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도서관장서의 발전이 정지된 상태에 놓이지 않기를 원한다면 장서의 선택업무와 마찬가지로 폐기업무를 중단할 수는 없다. 정규적 일상업무의 일부분으로 계획에 따라서 이 임무를 수행하는 도서관에서는 폐기에 대해 전통적으로 지녀 왔던 비호의적 태도는 사라졌다.

넷째는 폐기하는데 비용이 든다는 생각이다. 즉 기록을 제거하거나 자료를 이동할 때 드는 비용이 문제가 된다. “도서 한권을 제거하는데 드는 비용은 같은 크기의 서가 면적을 갖추는 비용과 같으므로 폐기하는 대신 더 많은 서가를 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 두가지 점이 간과되고 있다. (1) 문제되는 책이 폐기할만한 것이라면 그 책은 도서관의 재산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부담이 된다. (2) 문제되는 도서의 보관과 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추가 된다. 실제로 D.A. Woods는 1950년에 행한 일련의 시간연구(time study)에서 밀워키 주립 사범대학 도서관(Milwaukee State Teachers College Library)의 도서를 제적하는데는 한편당 10¢가 드는데 비해 서가를 세우는 데는 권당 1\$가 들기 때문에 제적도서 한편당 90¢가 절약된다는 것을 밝혔다¹⁶⁾. (참고로 1950년 당시 제적하는데 드는 비용 10¢는 비록 같은 도서관은 아니지만 23년이 지난 1973년에는 1\$가량 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⁷⁾.

이밖에도 폐기업무의 실행을 방해하는 장애점으로는 다음 두가지를 더 들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 두가지가 우리의 현실로는 가장 큰 장애점일런지도 모른다.

첫째는, 소장장서량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다. Geoffrey Ford는 그의 글에서 너무나 많은 사서들이 장서

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서의 숫자를 늘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들의 목적이 장서수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Jesse A. Martin과 Stern B. Manch¹⁸⁾도 많은 도서관에서 장서의 이용능력이 소장장서의 숫자에만 따르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대부분의 도서관기준들이 소장해야 할 도서를 양적으로 규제하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장서의 내용은 이차적 문제로 버려두는 모순을 범하기 쉽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많은 도서관이 법적 기준치를 넘기 위해 이용되지 않는 자료의 제적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도서관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목적이 그 자료의 이용에 있는 이상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를 계속 보관한다는 것은 도서관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 된다. 도서관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소장하고 있는 장서의 숫자만이 아니라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정도, 즉 장서의 질(質)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법적 최저기준을 넘어선 도서관은 그렇지 못한 도서관에 비해 폐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나은 편이므로 늘어나는 자료에 대해 증축, 신축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단계적인 해결책인 폐기정책을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는, 행정적 법규적인 제도의 미비이다. 실록 폐기의 필요성은 인정한다하더라도 이에 대한 규칙이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는 생각이다. 즉 국, 공립도서관일 경우 도서관자료는 정부재산으로 간주되고 이에 따라 분실, 망실 도서 처리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이를 간단히 처리하지 못하며, 사립도서관일 경우에도(법적기준을 넘어서서 현실적으로 폐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에서도) 규칙이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서관경영을 위한 이와같은 규칙이나 규정같은 것은 다른 누가 제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는 의당 이를 필요로 하는 사서들 스스로가 만들어야 할 것이다.

4. 폐기자료의 선정 기준

일단 도서관에서 어느 정도의 장서를 폐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인정되게 되면 다음 단계로 제기되는 문

16) D.A. Woods, "Weeding the Library Should be Continuous," *Library Journal*, Vol. 76 No.14 (Aug. 1951) pp.1193-1196.

17) Broadus, *op. cit.* pp.87-88.

18) Jesse A. Martin, Stern B. Manch, "Library Weeds," *Bulletin of Medical Library Association*, Vol. 59 No. 4 (Oct. 1971)

제는 어떤 자료를 폐기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폐기의 기준은 어느 도서관이나 일률적일 수는 없다. 실제로 L.Q. Mumford¹⁹⁾는 오하이오주의 몇몇 대규모 공공도서관들의 폐기정책을 조사한 후 각 도서관마다 폐기방법이 너무 다양해서 어느 도서관에나 적용될 수 있는 폐기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안할 수 없다고 하였다. 폐기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각 도서관의 성격(목적, 조직, 장서, 시설)을 잘 알아야 하고 도서관 입에산을 고려해야 하며 그 도서관이 봉사해야 할 이용자층의 성격 그들의 이용요구 및 이용양상을 파악해야 한다. 또 각 학문분야 및 그 출판물의 다양한 성격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폐기대상이 될 수 있는 도서의 종류로서는 이용빈도가 높거나 높을 것을 예상하여 구입한 기본으로서 더 이상 요구가 없는 것, 도서의 형태가 오손, 파손되어 이용이 곤란한 것, 도서의 내용이 이미 낡아서 이용가치를 상실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어떠한 경우이든 폐기할 자료를 선정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가장 이용이 되지 않는 자료를 폐기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 소장하고 있는 장서의 장래 이용도를 예측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언어, 출판년도, 종래의 매출빈도와 같은 객관적인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방법을 만들수 있는가 혹은 다만 주제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가?

한편, 과학 및 과학문헌의 특성때문에 과학자들이 무엇을 읽는가 그들의 독서습관은 어떤가 어떻게 정보를 얻는가 학술지의 이용율과 출판년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관한 연구에도 상당한 관심이 주어졌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은 각 주제분야에 있어서의 과학학술지의 이용이 그 분야의 전체 학술지중 극소수에 집중된다는 것을 보여준다²⁰⁾.

Robert E. Burton과 R.W. Kebler²¹⁾는 문헌의 이용가치 감소현상——과학문헌의 이용가치는 출판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음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한다——을 관찰하고 이용가치가 반으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half-life)라고 정의하였다. 그들이 실제 데이터로 측정된 결과에 의하면 순수과학분야가 응용과학분야보다 반감기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들면 수학의 반감기는 10.5년인데 비해 화학공학은 4.8년에 불과하다. 즉 최신문헌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는 순수과학분야보다는 응용과학분야에서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감기의 측정은 각 주제분야별로 도서관이 자료를 보관해야 할 기간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문헌의 이용율과 출판년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 F.P. Cole²²⁾은 서고면적의 효과적 이용을 위

한 문헌의 경제적 보존기간을 예측하는 수학적 공식을 만들어 내었다. 한편 Paula M. Strain²³⁾은 심각한 면적 부족 현상에 직면하자 이에 대한 장기적 및 단기적 처리방법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행하였다. 축차간행물의 대출기록을 분석한 결과 전체 대출요구의 80%는 지난 5년간에 출판된 자료에 관한 것이었고 처음 6년간(지난 5년과 그해)의 출판물이 모든 대출요구의 84%를 만족시켰다. 이는 Cole의 공식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그녀는 이 연구에 근거해서 학술지의 출판년도에 의한 폐기정책을 수립하였다.

Herman H. Fussler와 Julian L. Simon, 그리고 Richard W. Trueswell은 도서폐기를 위한 평가기준으로서 이용율을 사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Fussler와 Simon²⁴⁾은 대규모 연구도서관의 도서이용양상조사에서 시카고대학 도서관의 '경제학'과 '튜튼어 및 튜튼문학'의 주제를 선택하여 이들 장서에 대한 서가목록에서 무작위 표본을 추출하고 출판년도, 입수년도, 언어 등 여러가지 평가기준을 적용한 결과 종래의 이용율이 장래의 이용율에 대한 가장 좋은 예언자임을 발견했다. 한편 Trueswell²⁵⁾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는 대출기록에 대해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여 도서의 마지막 대출일자가 그 도서의 이용빈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는 것을 밝히고 종래의 대출기록을 가지고 장래의 이용율을 예측하여 도서관장서를 줄이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이 방법에 의해서는 도서관이

19) L.Q. Mumford, "Weeding Practices Vary," *Library Journal*, Vol.71 No.12 (June 15, 1946) pp.895-898.

20) George S. Bohn, "Science-Technology Periodicals; A Preliminary Report on a One-Year Use Study at NYPL," *Library Journal*, Vol. 88 No.5(March 1, 1963) pp.954-958. F. Cole, "A Look at Reference Scattering," *Journal of Documentation*, Vol. 18 No.6 (June 1962) pp.58-64.

21) Robert E. Burton, R.W. Kebler, "The Half-Life of Some Scientific and Technical Literatures," *American Documentation*, Vol. 11 No.1 (Jan. 1960) pp.18-22.

22) F.P. Cole, "Journal Usage Versus Age of Journal," *Journal of Documentation*, Vol.19 No.3(March 1963) pp.1-11.

23) Paula M. Strain, "A Study of the Usage and Retention of Technical Periodicals,"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Vol. 10 No.3 (Summer 1966) pp.295-304.

24) Herman H. Fussler, Julian L. Simon, *Patterns in the Use of Books in Large Research Librari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9).

25) Richard W. Trueswell, "A Quantitative Measure of User Circulation Restirements and Its Possible Effect on Stack Thinning and Multiple Copy Determination," *American Documentation*, Vol. 16 No.1(Jan. 1965) pp. 20-25.

26) Cooper, *op. cit.* p.339.

갖추어야 할 적절한 복본량도 추정할 수 있다. Trueswell이 제시한 장서체계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객관성과 단순성의 이점을 갖고 있다²⁶⁾.

Winston C. Lister²⁷⁾도 비용효과면에서 불배 출판년도나 기타 주관적인 규칙에 의하는 것보다는 이용율에 의거하여 폐기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했다.

물론 이상과 같은 경제적, 양적 폐기정책을 세우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J. E. Walsh²⁸⁾는 폐기정책은 각 주제별로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고전의 경우, 복본에 한해서만 폐기하며 판이 다른 것 다른 번역본 등은 모두 보관해야한다는 것이다. 출판년도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폐기업무는 주제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행해져야한다는 것이다.

예일대학에서 도서관지원재단(Council on Library Resources, Inc.)의 자금지원하에 행한 도서폐기 계획²⁹⁾은 바로 '주제별로 폐기정책을 적용한 예이다. 예일대학교에서는 "이용율"을 기계적으로 적용시키는 대신에 각각의 도서에 대해서 개별적인 판단을 요하는 폐기정책을 세웠다. 그런데 폐기자료의 선정에서 교수진이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그들의 협력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교수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이 계획이 좌절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휴스턴대학교의 폐기정책도 이에 해당된다. 휴스턴대학은 도서관입에산을 배당받는 각 학과마다 대표자가 각각 그 학과와 관련된 특수분야의 장서폐기에 관해서 사서와 의논하도록 하고 학과와 직접 연관이 없는 분야의 장서는 관심있는 교수나 지역사회 전문가에게서 도움을 받아 사서 자신이 폐기하도록 하는 정책을 세웠다³⁰⁾.

그러나 James Thompson은 그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한 대학교 내에서도 학과마다 도서관 지향성에 큰 차이가 있어서 어떤 학과는 도서관이 제공하는 모든 자료를 이용하는 가하면 어떤 학과는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전자의 경우에도 실제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은 몇몇 개인에 불과한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학과 협력에 기초해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일관된 폐기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결국은 사서가 항상 중요한 책임을 지게 된다³¹⁾. 이런 이유로 그는 매출빈도와 출판년도의 양적 평가기준에 의거해서 폐기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완전히 똑같은 폐기정책을 가진 도서관이란 있을수 없다. 그것은 도서관의 목적, 소

장자료의 양과 그 성격, 수서정책의 목적, 장서의 성장율, 장서보관의 경제적 측면, 이용자의 요구 및 전체적인 행정계획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폐기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연구를 거쳐서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일단 결정된 폐기정책은 선택정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쉬운 문장으로 명확하게 표현하여 해석상의 오해나 무리가 없도록 해야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필요하다면 개정해서 쓸 수 있어야 한다.

5. 결 론

이용자의 새로운 정보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도서관이라면 그리고 능률적인 장서관리를 하고자 하는 도서관이라면 이용가치가 줄어들거나 소멸된 소장 자료의 폐기문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폐기의 기준은 사서의 전문직적 판단, 주제별 전문가의 판단, 이용율, 출판년도 등을 고려하여 각 도서관에 맞도록 신중히 설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용되지 않는 장서의 폐기문제에 대한 관심은 학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이제까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 도서관의 영세성이 가장 큰 것 같다. 우선 장서량을 확보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란 거의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이용이 낮은 자료만을 모아 따로 보관하는 방법은 증축, 개축, 신축은 고려하면서도 그 필요성을 심각히 느끼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언제인가는 모든 도서관에 닥쳐 올, 그리고 일부 도서관에서는 이미 닥쳐 온, 이 문제에 보다 일찍 대처하는 것이 해결도 쉽고 비용도 절약될 것이다.

끝으로 각종 도서관기준에서 밝혀진 폐기기준, 각종 문헌에서 밝혀진 구체적인 주제별 폐기기준, 각 도서관에서 채택하고 있는 폐기기준(사태)은 본 논고에서 다루지 못하였다. 이는 기회를 달리하여 살펴볼 생각이다.

27) Winston C. Lister, *Least Cost Decision Rules for the Selection of Library Materials for Compact Storage*. (Lafayette, School of Industrial Engineering, Purdue University, 1967).

28) J. E. Walsh, "An Experiment in the Selection of Library Books for Storage," *Harvard Library Bulletin*, Vol. 8 (Autumn 1954) pp.378-381.

29) Lee M. Ash, *Selective Book Retirement Program*, (Hamden, Conn., Archon Books, 1963).

30) McGaw, *op. cit.* p.272.

31) Thompson, *op. cit.* p.42.